2016년 09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9월 26일(月) : 주간회의(11시)

○ 09월 28일(水) : 호남인물 사료 읽기 – 노사 기정진 연보(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1호)

○ 09월 29일(木) : 전북지역 의병 사료 읽기 – 최제학 습재실기(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1호)

■ 연구원 소식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매주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연구원 소모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인자요산(仁者樂山)' 에서 전북권에 있는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10월 15일(토)**에 진행할 예정이며, 장소는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잊고 선선해지는 가을 산행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으로 미리 연락주시면 됩니다.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장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

<망해사 낙조 바라보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다가 될 수 없는 슬픈 호수>

김제·만경평야를 이 동네 말로 '징계 맹경 외애밋들' 이라고 한다. 김제 만경의 너른 들을 일컫는 말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절' 망해사(望海寺).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에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김제시 만경읍을 거쳐 진봉면으로 가는 그 길은 들판 가운데로 나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정점, 만경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이다.

일제 강점기 간척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광활면이 인접해 있는 길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수명을 다한 심포항 인근에 다다른다. 그 길이 산자락으로 향하며 야트막한 구릉 사이로 망해사가 나타난다.

망해사는 작은 절이다. 전각이라 해 봐야 주불전인 극락전과 낙서전(樂西殿), 종각, 그리고 요사가 전부다. 하지만 참으로 절다운 절이다. 그 절다움은 낙서전(樂西殿)으로 하여 선명해진다. '해지는 서쪽을 기꺼워한다' 는 이 소박함 앞에 사뭇 경건함을 느끼게 된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망해사는 더 이상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 아니다. 이제는 바다가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절이 되고 말았다.

망해사가 등을 기대고 있는 진봉산은 구릉에 가깝다. 해발고도라 해봐야 72m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산기슭의 우람한 소나무들이 워낙 울창하여 깊은 산처럼 느껴진다. 진봉산은 예로부터 대단한 산이었다. 대동여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경현 조에 진봉산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진봉면의 이름도 이 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동진강 방조제를 쌓아 만든 광활면 간척지가 일본인들의 수탈 행위였다면, 21세기의 새만금 방조제는 문명의 수탈이다. 망해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후대의 사가들은 문명의 둑으로 막힌 새만금의 바다에서 21세기의 비극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나마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물을 가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연의 끝없는 생명력에 희망을 걸어 본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품

獨坐敬亭山(독좌경정산)　　홀로 경정산에 앉아

衆鳥高飛盡(중조고비진)　　뭇 새들이 높이 날아 사리지고
孤雲獨去閑(고운독거한)　　외로운 구름 홀로 한가롭게 떠간다.
相看兩不厭(상간량불염)　　아무리 보아도 물리지 않으니
只有敬亭山(지유경정산)　　다만 경정산이 있어서라.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두보가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한편 이백은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이백의 시는 <산중문답(山中問答)> 등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주로 낭만적인 성향의 시들이다. 시풍이 호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어 사용이 명쾌했으며, 그 사상적인 기반은 도교였다.

▌감 상

- 경정산에 혼자 앉은 감상을 읊었다. 온갖 새들이 산에서 지저귀며 놀다가 저녁녘이 되어 높이 날아가 버렸고, 하늘에는 외로이 떠가는 구름만 한가롭게 보인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은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있으면서 싫지 않은 것은 오직 저 경정 산뿐이로구나 했다. '衆鳥(중조)'를 '名利(명리)'를 좇아 흩어져 가는 '俗人(속인)'으로, '孤雲(고운)'을 "세속을 벗어나 '隱居(은거)'하는 고고한 인사"로 비유하여 풀기도 한다. 산이 거기 있기에 오른다는 말과 같이 묵묵히 마주해 주는 경정산을 찬미했다 한다.

■ 도농상생

우리 연구원 이정욱 평의원(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의 고향이 전북 순창군 복흥면입니다. 어머니께서 여름내내 땀흘리며 가꾼 오미자가 빨간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1Kg당 9,000원입니다. 5Kg 이상 주문부터는 택배비 무료입니다.

지난 회원의 날에 박애스더 회원께서는 지난 해 담근 오미자 엑기스를 후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엑기스, 효소, 담금주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몸에 좋은 오미자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